

# 자연이 예비한 '스며드는 힘'

## 시골살이의 보람, 글씨?

김열규 · 인제대 국문학과 교수

원하던 원하지 않은 완벽한 고요 속에 묻히는 것, 그리하여 내가 마치 고요라는 과육(果肉)의 과핵(果核)이라도 된 듯이 느끼는 것. 이내 밤이 되면 어둠을 두고도 비슷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것. 어둠도 어디 예사 어둠이던가? 칠혹, 그것도 수다스런 빛살이 없어서 비로소 더욱 빛나는 것인 절대의 칠혹 속에서 내가 다만 더운 물에 녹아드는 한 손갈 꿀이라는 생각, 그 엄청난생각을 누리는 것. 그리하여 나의 책읽기며 시읽기가 그와 같기를 추구하는 것.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런 걸까? 바다 가까운, 외딴 두메살이의 보람이라는 것은? 그럴 때, 내 생각의 속살에 번지는 구절 한 토막.

### 두메살이 책읽기의 보람

“올해 같은 시기에 시골에 머무는 것은 특히 마음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연과 더불어 위해 갖춰야 할 마음의 단순성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영향, 그 고요하게 스며드는 존재성은 애시당초, 밤낮도 없이 질기게 일어나곤 하는 이롭도 없는 인간적인 일들이며 그것들로 인한 숙명에 의해서 짓눌리게 마련입니다.”

이건 릴케가, 루 앙드레아스 샬로메에게 1914년 가을의 어느날 보낸 편지의 일부다. 프로이트, 니체, 그리고 바그너라니! 이 어마어마한 사내들을 한때 벗삼을 수 있었던 이 마녀(?)에게 릴케는 같은 편지에서 “사랑하는 루어! 이 떠분한 팔월에 누군지가 진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건 당신의 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이에 우리가 당시 릴케의 글을 통해 자연과 샬로메의 풀이아말로 ‘스며드는 존재성’ 또는 ‘스며드는 힘’을 향유하고 있었노라고 헤아리면 잘못일까?

이같이 우리들 세기에서 가장 순수하게 시 그 자체, 시정신 그 자체였던 시인이 생각한, 자연의 ‘스며드는 힘’을 나는 나대로 내 과핵의 이미지에 또 꿀의 감각에 붙여보는 것 또한 두메살이며 그 책읽기의 보람이다.

지난 겨울 내내 책읽기도 뜬한 채, 아주 뜰에 나가질 못했다. 모진 감기로 해서 나는 내 몸뚱이를 늘상 온돌방 아랫목처럼 혹은 옛 질화로 밑장의 불씨처럼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이 가까워지면서 매일 밤, 일기예보를 유달리 지켜보았다. 내 자신의 ‘경칩 날짜’를 잡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2월도 중순을 넘긴, 어느 햇살이 따사로운 날, 나는 잔뜩 껴입고 뒤집어 쓰고서는 한낮에 뜰에 나갔다. 뜰안을 몇 발자국 옮기다가 문득 양지 쪽, 나뭇가지에 기대다시피하고 섰다.

아! 그 순간, 한 오리의 향기, 한 가닥의 꽃 향기. 먼저 코 끝이 쭈뼛하니 서고 이내 온 신경, 온 감각이 창날 아니면 칼날 같은 날을 세웠다. 아릿한가 하면 달고, 달가로운가 하면 매서운 향, 은은한데도 사뭇 선연(鮮妍)한 향. 그것은 영낙 없는 매화의 것이었다. 매화도 보통 매화가. 희다 못해서 눈이 시리게 푸른 옥매의 향. 하지만, 그건 매화만의 몫은 아니다. 이른 봄, 먼 바다를 건너 온 차디찬 바람이 거들고서야 비로소 매화가 풍길 수 있는 향. 그것은 기품 있는 얼굴이 차갑게 마련인 것과 같은 이질까?

### 매화향기 맡듯 다시금 시읽기를

어젯밤 어둠을 적셔대던 서릿발의 기운,

우리들 세기에서 가장 순수하게 시 그 자체, 시정신 그 자체였던 시인이 생각한, 자연의 ‘스며드는 힘’을 나는 나대로 내 과핵의 이미지에 또 몸의 감각을 붙여보는 것 또한 두메살이며 그 책읽기의 보람이다.

아리디 아린 그 기운의 여운을 다하지 않고는 일구지 못했을 향. 이것이야말로 봄이라는 자연이 예비한 위대한 ‘스며드는 힘’ 이노라고 저승에 있는 릴케에게 써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야 차가움이 내 것이노라고

덧붙이고 싶다.

나의 젊은 한 시절, 나로 하여금 온 세상 다른 모든 시인을 다만 여분으로만 치부하게 한 장본인이 릴케다. 그의 시, 그의 언어는 내게는 적어도 이른 봄의 매화향기가 갖는 ‘스며드는 위대한 힘’

바로 그것이었다. 언제나 늠렬(凜烈)했다. 무시무시했다. 지극한 그 감동은 내 엄통을 균열(龜裂)하는 얼음짱이게 하였다.

죽음은 위대한 것, 우린 다만 그의 웃는 입에 지나지 않느니, 우리가 생의 내면에 있고자 할 때, 그는 우리들 내면에서 감히 울음 운다.

이런 시에서 그렇듯이, ‘인식의 소름’, ‘전율하는 개안(開眼)’은 내 온 머릿골에서 서릿발의 번개가 치게 했다. 매서워서 향기로운 인식이었다. 이 봄, 매화향기 맡듯이 다시금 시읽기를 해야겠다. 정수리에 얼음같이 꽂히듯 하는 인식의 준열(峻烈)을 시에서 얻노라면, 매화꽃을 띄운 녹차의 향이 더할 것이니, 두메살이의 보람으로 더 무엇을 바라라. ❖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

